

龍巖 朴雲의 「次悶己」賦에 나타난 志向意識

李九義*

- I. 머리말
- II. 「次悶己」賦의 생성과 외형적 특징
- III. 「次悶己」賦에 나타난 志向意識
- IV. 「悶己」賦의 영향과 계승
- V.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龍巖 朴雲(1493-1562)의 「次悶己」賦에 나타난 志向意識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 연구 방법은 人文主義 批評理論을 적용하였다.

용암의 「次悶己」賦는 당나라 때의 문장가인 韓愈의 「悶己」賦를 차운한 것이다. 하지만, 두 작품을 외형적으로 보면 조금 차이가 있다. 용암은 초기 賦의 형태를 취했고, 한유의 것은 楚辭이후의 형태를 취했다.

각 句의 글자는 ‘兮’자를 제외하면 의미단락은 6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賦에서 가장 많은 글자가 한 句에 4자와 6자이다. 따라서 두 작품은 기본 賦의 기본 字數에 충실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 경북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두 작품 모두 압운의 묘미를 살렸다. 平聲의 개방·진전·밝음의 이미지와 仄聲의 정지·퇴보·어둠의 심상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그의 賦에 나타난 지향의식은, ①浩然之氣를 순양, ②청빈한 선비로 爲己之學을 추구, ③겸손한 마음으로 침잠 구도, ④ 外物의 유혹을 받지 않고 타고난 本性을 잘 보전, ⑤ 현실세계에 대하여 憂患意識, ⑥천리에 순행하려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한유의 「悶己」賦를 차운한 사람은 용암과 象村 申 欽(1566-1628), 그리고 悔軒 趙觀彬(1691-1757)이다. 상촌이나 회현의 작품은 한유의 것과 외형적으로 보면 같다. 그 의미의 大綱도 대단히 비슷하다.

「次悶己」賦를 지은 사람들은, 자신의 지향의식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다. 작품 속에서, 이들은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려 하였다.

이 「次悶己」賦를 지은 사람들은 현실세계가 어렵다고 하여 좌절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학문에 전념함으로써 물질적 고통에서 해방하려 하였다. 이 작품을 지은 세 사람은 모두 학문으로 이름을 드날렸다. 이들의 이러한 태도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준다.

主題語：悶己賦, 韓愈, 浩然之氣, 謙遜, 憂患意識, 現實, 聖賢

I. 머리말

본고는 한 평생 벼슬하지 않고 학문에만 전심한 龍巖 朴雲(1493-1562)의 작품 가운데 「次悶己」賦에 나타난 그의 志向意識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금까지 박운에 대한 연구는 필자의 논문 한 편이 유일하다.¹⁾

1) 이구의, 「龍巖 朴雲 시에 나타난 정신세계」, 『溫知學報』第15輯, 溫知學會,

필자는 年前에 그의 시에 나타난 정신세계를 고찰한 적이 있다. 같은 사람이 지은 작품이기 때문에 그 정신이 같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같은 사람이 지었지만 정신이 다를 수도 있다. 시와 賦는 분량 면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다. 시가 짧은 운문이라면 賦는 시보다 긴 운문이다. 물론 용암이 살았던 시기에는 시의 길이가 상당히 긴 것도 있다. 한 작품이 100구가 넘는 것²⁾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용암의 시는 긴 것이 38구³⁾이다.

이 논문을 진행하는데 주 대본이 되는 것은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龍巖集』(木版本)이다. 이 밖에 필요에 따라 여러 서적을 참고하기로 한다. 본고의 진행 방법은 역사, 형식, 의식, 사회비평 이론을 아우른 인문주의 비평 이론을 적용한다. 이 논문을 통하여 조선 중기 선비들의 정신 영역을 이해하는데 다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면 위 목차의 순서대로 본고를 진행하기로 한다.

II. 「次悶己」賦의 생성과 외형적 특징

龍巖은 唐나라 때의 문장가인 韓愈의 「悶己」賦를 차운하여 이 賦를 지었다. 李德懋는 그의 「죽질 복초 광석에게」 보내는 편지에 서, “옛날에 되지는 민기부를 지어 자신의 의지할 곳 없음을 한탄하였다⁴⁾”고 하였다.

2006. 11, pp.159-186. 이 논문에서 용암의 생평에 대해 상세히 논의하였기에 본고에서는 이를 생략하기로 한다.

2) 葛峯 金得研(1555-1637)의 「元朝」시 가운데 계유(79세, 1633)년에 지은 것은 5언 140구에 이르는 것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시가 賦에 비해서 그 길이가 짧다.

3) 『龍巖集』卷1에 실려 있는 「武夷精舍」, 「大夫松」시가 그것이다.

4) “昔退之作悶己賦歎其無依歸.” 「與族姪復初光錫」, 李德懋, 『靑莊館全書』卷15, 『雅亭遺稿』7.

용암이 이 부를 지은 시기는 그의 나이 22살 되던 해(1514)이다. 연보에는 그의 나이 20살(1512) 때 「차지도 않고 흐르지도 않음(不寒不流)」 부를, 27살 되던 해(1519) 봄 進士 會試 때에는 「巡狩」 부를 지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전하는 것은 「悶己」부와 「巡狩」부 2수뿐이다. 먼저 韓愈의 「悶己」⁵⁾賦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성현에 미치지 못한 울적함을 문장으로 표출

余非不及古之人兮	내 옛 성현에 못하지 않음이며,
伊時勢而則然	그 때의 형편이 그러하였다네.
獨悶悶其曷已兮	홀로 어찌할 수 없음에 안타까워,
賃文章以自宣.	문장으로 내 속 마음을 펼친다네.

② 안회(顔回)와 같은 자신의 처지를 스스로 위안함

昔顔氏之庶幾兮	옛날 안회(顔回)와 비슷함이며,
在隱約而平寬.	약하면서도 평관하게 지내네.
固哲人之細事兮	진실로 철인들의 하찮은 일이라,
夫子乃嗟歎其賢.	공자가 그 어쉴에 감탄하였다네.
惡飲食乎陋巷兮	누항에서 거친 음식 먹으며,
亦足以頤神而保年.	또한 정신과 생명을 보전할 수 있었네.
有至聖而爲之依歸兮	공자님 같은 성인이 계셔서 그에 의지함이며,
又何苦不自得于艱難	또 어찌 가난 하다 자득하지 못 함 괴로워하리.

③ 실의에 빠진 자신에 대한 반성과 학문할 것을 다짐

曰余昏昏其無類兮	나는 어리석어 그 무리에 들지 못함이며,
望夫人其已遠	부인을 바라지만 이미 멀어졌다네.
行舟楫而不識四方兮	배를 타고 노저어가지만 어디로 갈지 몰라,

5) 嚴昌 交点, 『韓愈集』, 長沙: 岳麓書社, 2000. 9, p.3.(번역 필자)

涉大水之漫漫	출렁이는 큰 강물을 건넌다네.
謹祖先之所貽兮	조상님께서 남겨주신 유산이여,
勉汲汲于前修之言	선현들이 닦으신 말씀 열심히 익히리.

④ 현실에 대응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

雖舉足而蹈道兮	비록 발을 들어서 길에다 내놓지만,
哀與我者爲誰	슬퍼라 나와 같은 이 그 누구이던가?
衆皆舍而己用兮	사람들은 다 버리지만 나는 그것을 씀
	이여,
忽自惑其是非.	갑자기 그 옳고 그름에 스스로 흔들린
	다네.

⑤ 넓은 세상에 대해 불안한 자신의 입장

下土茫茫其廣大兮	대지는 넓고 넓어 아득함이여,
余豈不知其可懷.	내 어찌 그 생각 할 줄 모르리.
就水草以休息兮	물가의 풀 위로 나아가 쉬노라니,
恒未安而既危.	항상 위태로움에 마음 불안하구나.

⑥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과 앞으로의 다짐

久拳拳其何故兮	오래도록 곱씹음은 그 무슨 까닭일까,
亦天命之所宜	또한 천명의 마땅함이라네.
惟否泰之相極兮	오직 비괘와 태괘가 서로 극을 이룸이
	여,
咸一得而一違	모두 한 번 합하면 한 번 어긋난다네.
君子有失其所兮	군자가 갈 곳을 잃음이여,
小人有得其時	소인이 그 때를 얻었구나.
聊固守以靜俟兮	오로지 본마음 지켜 조용히 기다림이여,
誠不及古之人兮其焉悲!	참으로 옛 성현에 미치지 못해 슬프도
	다!

용암이 이 賦를 지은 것은 해가 戊寅(1518)년, 그의 나이 22살 되던 때이다. 일반적으로 22살의 나이에 性情이 완성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20대는 성정이 무르익어 가는 과정에 있다. 물론 사람에 따라 그 시기가 다르다. 용암은 7살 때 『小學』을 익혔다. 그리고 13살 때 經史를 두루 섭렵했다고 한다. 이로 미루어 보면 그의 心地가 일찍 굳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용암의 작품을 들어 한유의 것과 외형적으로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니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隨成心以馴養
師孟氏之浩然
得帷林之眞韻
斥窮愁而自宣

마음에 따라서 순양(馴養)하니,
맹자의 호연지기 스승으로 삼았네.
유(帷)와 임(林)의 진운을 얻어서,
궁수를 물리치고 스스로 밝히누나.

體不寧於蓍席
顏種噲而心寬
綿汲古之脩綆
揖清芬於前賢
魚蠹於金縷之萬卷
衣不解王通之六年
金旣殫於屠龍
旋黃馘而艱難

몸이 대자리에서 편하지 못 해,
얼굴 못 생겼지만 마음은 너그럽네.
고인들이 닦으신 길 이어감이어,
전현들의 맑은 향기를 잡았다네.
금루의 만 권 책에는 좀이 치는데,
왕통처럼 6년 동안이나 옷 벗지 않았네.
돈은 이미 공부하는데 다 써버렸고,
마침내 몸만 늙어 괴롭기만 하구나.

然做力之敢忽
知任重而道遠
駕意馬而馳騁
求大道之漫漫
探幽隲以內保
靜冥默而無言

하지만, 감히 소홀할 수 있으랴,
책임 무겁고 갈 길 먼 줄 아네.
의마에다 멩에를 씌워 내달려,
대도의 멀고 아득함을 구한다네.
깊은 뜻 찾아 마음속에 간직하고,
조용하고도 묵묵히 말이 없어라.

發天光於泰宇
慨相酬者伊誰
不撓志而徇物
觸人間之是非

하늘빛이 마음속에서 피어나나니,
서로 주고받을 사람 그 누구인가.
뜻은 흔들리지 않고 사물에 따라,
인간 세상의 시비에 접촉하노라.

哀顛躓乎險途	힘준한 길에 넘어진 것을 슬퍼하고,
鬱不敘其所懷	답답한 가슴속 생각 펴지 못하노라.
人緩鉞以忌極	사람들 느리고 급하여 극단 싫어해,
世捩井而多危	세상은 우물가에 선 듯 위태롭구나.
重鉗械乎世梗	무거운 형틀에 눌러 세상길 막혀,
順性命之攸宜	타고난 본성에 순종함이 마땅하리.
命與謀而相仇	천명과 내 꾀가 서로 어긋나고,
心與事而長違	마음과 하는 일 길이 어긋났다네.
予始孌而寡儔	외롭고 평탄치 못하여 짝이 적고,
悶行道之無時	도 행 할 때가 없음이 민망스럽네.
援聖賢與之依歸	성현들과 함께 귀의할 곳 있으니,
奚老洫之窮悲	어찌 노혁의 구슬픔을 한탄하랴.

앞의 한유의 부와 위의 용암의 것을 외형 면에서 비교해 보면, 몇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韓愈의 것은 出句에 ‘兮’가 있다. 즉, 出句에서 어떤 결과를 詠嘆하면 對句에서 원인을 읊는다. 그러나 용암의 작품에는 이러한 ‘兮’자가 없다. 이는 용암과 한유가 바탕으로 한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용암은 초기 賦인 漢賦의 형식을 따왔고, 韓愈는 屈原의 『離騷』의 형식을 취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각 句의 글자 수에서 보면, 용암이나 한유의 작품 모두 6자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물론 그렇지 않은 句도 있다. 한유의 것을 언뜻 보면 일곱 자가 기본인 것 같다. 그러나 虛詞인 ‘兮’를 빼면 의미 단위는 여섯 글자이다.

일반적으로 賦는 한 句를 이루는 글자 수가 3, 4, 5, 6, 7, 8자로 된 것이 보통이다. 가끔씩 한 구가 8자 이상인 경우도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한 句에 4자와 6자이다.⁶⁾

6) 曹明綱, 賦學概論, 上海: 古籍出版社, 1998. 11, pp.44-151 참조.

셋째 용암의 작품은 한유의 것을 次韻하였지만, 한유의 것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 용암의 賦는 기본이 여섯 자이다. 賦에서 가장 많이 쓰는 구식을 따랐다. 그러나 3구절은 예외이다. 3구절 가운데 두 句는 여덟 자, 한 句는 일곱 자로 이루어졌다.

넷째 韻字는 한유나 용암의 것이 똑같다. 이 두 작품의 운은 평성 ‘先’운과 평성 ‘支’운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두 句에서는 去聲 ‘願’운과 ‘敬’운을 쓰고 있다.

다섯째 한유나 용암의 작품 모두 韻의 변화에 따라 단락이 나뉜다. 처음 세 단락은 평성 ‘先’ 또는 ‘寒’운을 쓰고 있으며, 넷째 단락부터는 평성 ‘支’운을 쓰고 있다. 그러나 중간 중간에 다른 운을 쓴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通韻을 쓰고 있다.

여섯째 한 단락은 4구에서 9구로 이루어졌다. 9구는 出句 두 구와 對句 한 구이다. 그러나 이 단락도 의미상으로 보면 여덟 句가 된다. 4, 8, 9의 숫자는 우연으로 볼 수도 있으나 결코 우연이 아니다. 四相과 八卦, 그리고 洛書의 수를 혼용하고 있다. 이는 천지의 혼용과 後天의 복잡다단한 세계에 대한 대처를 뜻한다. 이러한 결구법은 용암 자신이 터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먼저 한유의 것을 모방한 다음 그 자신이 조금 보완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면 용암의 「차민기」부는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를 고찰하기로 한다.

III. 「次悶己」賦에 나타난 志向意識

용암의 「차민기」부에서 가장 먼저 지향한 의식은 浩然之氣이다. 호연지기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①浩然之氣를 馴養하고자 한다. 위의 첫째 단락에서 보면 자아⁷⁾는 成心에 따라 순양하기를 바라

7) ‘서정적 자아’(Persona), 또는 ‘작중화자’를 줄여서 ‘자아’로 부르기로 한다.

고 있다. 成心은 자신에게 자리 잡은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은 본디 善하다. 이 착한 마음을 잘 길러야 한다. 이것이 馴養이다. 자아는 먼저 性이나 情, 또는 理나 氣를 말하지 않고 ‘心’을 언급하였다. 이것은 용암 자신이 일찍부터 마음[心]에 관심⁸⁾을 가졌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마음이 편협해서는 안 된다. 자아는 맹자의 ‘浩然之氣’를 자신의 본보기로 삼았다. 즉, 자아는 편협한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을 가지기를 바랐다. 호연지기를 기르는 방법은 ‘助忘’하지 말아야 한다. 즉, 助長하지도 忘却하지도 말아야 한다.⁹⁾ 이것이 맹자의 생각이다. 이러한 맹자의 생각이 곧 용암의 생각이다.

자아는 또 ‘帷’와 ‘林’의 진운을 얻어 窮愁를 물리친다고 하였다. ‘帷’와 ‘林’은 본디 같은 韻統이 아니다. ‘帷’는 평성 ‘支’운이고, 林은 평성 ‘侵’운이다. ‘帷’는 장막이다. 그리고 ‘林’은 숲이다. 이 뜻은 누구나 알고 있다.帷와 林은 무엇을 가린다. 장막은 물론 나무들이 뻗뻗이 들어선 숲은 외세를 막는다. 자아가 구체적으로 드러낸 막음의 목적어는 바로 ‘窮愁’, 즉 ‘곤궁하여 수심’에 잠기는 것이다. 평성 운은 개방과 진전, 밝음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반면 측성 운은 폐쇄와 정지, 어두운 심상을 지닌다. 이처럼 자아는 押韻에서도 이미지를 최대한 살렸다. 평성 운을 많이 씌으로써 자신의 내면에 잠재해 있던 어두운 그림자를 없애려 하였다.

자아는 浩然之氣를 지닌 넓은 마음을 잘 기르려 한다. 그 자신이 곤궁하다고 수심에 잠겨 있기를 거부한다. 그는 넓은 마음으로 근심을 떨쳐버리려 한다.

8) 그는 일찍 「紫陽心學至論」(『龍巖集』권2)을 지어, “인(仁)으로 사랑하는 것, 의(義)로 미워하는 것, 예로 사양하는 것, 지(智)로 아는 것이 마음이다.[以仁愛, 以義惡, 以禮讓, 以智知者心也]” 라고 하였으며, “마음은 기(氣)의 정상(精爽)이다.[心者, 氣之精爽]”라고도 하였다.

9) 『孟子』, 「公孫丑上」 참조.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②淸貧한 선비로서 爲己之學을 추구하려 한다는 점이다. 위의 둘째 단락을 보면, 먼저 자아의 마음가짐이 청빈함을 드러내고 있다. 마음가짐이 청빈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벼슬살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 자체도 화려하지 않다. 그의 몸이蓐席에서 편안하지 않다고 했다. 시식은淸貧하게 살면서 학문에 전념하는 선비를 가리킨다.

자아는 楚나라 때의 高士인 老萊子의 고사를 원용하였다. 晉나라 皇甫謐이 엮은 『高士傳』의 「老萊子」편을 보면, “노래자는 초나라 사람이다. 당시 세상이 어지러워지자 속세를 피해 몽산의 남쪽에서 땅을 일구었다. 갈대로 담을 쌓고 쪽대로 집을 이고 나뭇가지로 침상을 만들고 시초로 자리를 만들었다. 물을 마시고 콩을 먹고 산을 개간하여 씨를 뿌렸다¹⁰⁾.”한다.

자아, 즉 龍巖은 20대 초반의 나이 때부터 벼슬살이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것을 이 賦에서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그는 27살 되던 해(1519)에 進士試에 합격한 뒤로 다른 시험을 쳤다는 기록이 없다. 이 賦는 어쩌면 용암 자신의 미래를 예언한 것일 수도 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용암은 한평생 벼슬하지 않고 학문만 하였다. 그 결과 그는 善山의 十賢¹¹⁾에 들어가게 되었다.

자아는 얼굴이 못 생겼지만 마음만은 너그럽다고 하였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한 말이다. 그는 겉모습보다는 내면의 마음가짐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句는 자신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 번 상기시

10) “老萊子者, 楚人也. 當時世亂, 逃世耕於蒙山之陽, 莞葭爲牆, 蓬蒿爲室, 枝木爲牀, 蓍艾爲席, 飲水食菽, 墾山播種,” 皇甫謐, 『高士傳』上, 「老萊子」.

11) 선산의 十賢은 治隱 吉再, 丹溪 河緯地, 江湖 金淑滋, 佔畢齋 金宗直, 新堂 鄭鵬, 松堂 朴英, 濃巖 金澍, 耕隱 李孟專, 眞樂堂 金就成, 龍巖 朴雲이다. 訖齋, 崔峴 『訖齋集』 「訖齋先生年譜」37歲條, 『韓國文集叢刊』67, p. 495 참조.

킨다. 선현들의 자취를 더듬어 그들이 행했던 길을 가고자 한 것이다. 이는 마치 退溪 李滉의, “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뵈, 古人을 못 봐도 녀던 길 알푼 | 잇느 |. 녀던 길 알푼 | 잇거니 아니 녀고 엇덜고¹²⁾.”라는 시조의 구절과 그 의미가 비슷하다.

자아의 학문의 지향점은 위의 퇴계의 시조에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옛 聖賢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다. 고인이 걸었던 그 길을 기꺼이 나도 따라 걷겠다고 한 것은 곧 聖學을 배우고 익혀 일상의 사소한 일 처리에까지 성인의 가르침을 본받아 살아가리라는 다짐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자아는 일상생활에서 ‘古人’, 즉 옛 성현의 삶과 어긋나지 않았는지를 성찰하며 행동하였다. 그만큼 자아, 즉 용암은 젊어서부터 자신의 내면을 충실하려고 하였다. 그는 학문에 대한 열정이 강하였다. 학문의 열정은 다름 아닌 옛 성현의 삶과 학문을 기리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자아의 ‘溫故而知新’하려는 그의 태도를 알 수 있다. 이 ‘온고이지신’하는 태도는 자아가 ‘尙古主義’ 역사관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자아는, 긴 줄로 古人들이 닦으신 길을 끌어당긴다고 하였다. 여기서 긴 줄은 자아와 고인들을 잇는 연결고리가 된다. 단절된 것이 아니라 선현들의 자취와 자아의 행동이 서로 접속하고 있다. 이 긴 줄은 일회성이 아니다. 연속적이며 영원하다. 그의 정신은 단절보다는 연속을, 일회보다는 영원을 추구하고 있다.

긴 줄의 연결고리는 자아와 선현들의 맑은 향기를 잇고 있다. ‘맑은 향기’는 선현들의 훌륭한 자취를 말한다. 선현들의 훌륭한 자취는 바로 그들이 남긴 여러 문헌이다. 자아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물질이 아니라 정신이라는 것이 여기서 분명히 드러난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구절에서, 자아는 ‘金縷로 엮은 책’이라

12) 『退溪先生文集內集』卷43, 「陶山六曲之二」其三.

하였다. 일반적으로 ‘금실’은 고귀함을 나타낸다. 그러나 자아가 말한 ‘금실’은 신분상 고귀함을 뜻하지 않는다. 책을 맨 실이 황금 빛이라는 말이다. 황금빛은 누른색이다. 누른색은 가운데를 뜻한다. 자아가 중심을 잡고 있다는 것을 넌지시 말하고 있다. 황색은 五行으로는 ‘土’를, 五常으로는 ‘믿음[信]’을 뜻한다. 금루, 즉 책에 치는 좁은 자아 자신을 가리킨다. 여기서 자아는 다른 일을 할 수 없고 마치 책을 갹아먹는 좀 벌레처럼 학문에만 전념하겠다는 그의 의지가 담겨 있다.

그의 의지는 왕통을 본받고자 한 데서 더욱 더 강하게 나타난다. 王通은 隋나라 때의 학자이다. 字가 仲淹인데 유년 시절부터 학문에 돈독하였다. 그는 長安에 가서 「太平十二策」을 올리고는 자신이 쓰이지 않을 것을 알고 물러나 黃河와 汾水 가에 살면서 강학하였는데, 門徒가 천여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문인들이 文中子란 시호를 올렸다고 한다.¹³⁾

그러나 자아는 자신의 삶에 대해 근심스러워 한다. 그 이유는 자신의 생활이 궁핍한 것과 아울러 그의 몸이 늙었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용암은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다. 선비가 恒産이 안 되니 삶이 쪼들릴 수밖에 없다. 더구나 몸마저 늙었다. 이 구절은 용암 자신의 앞날에 대한 일종의 讖言이라 할 수 있다. 20대 초반에 용암 자신이 한 말처럼 그의 삶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이다.

③겸손한 마음으로 沈潛하여 求道하려 한다. 위의 셋째 단락에서 그러한 그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앞 단락에서 자아는 돈도 없고 몸이 늙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생활의 궁핍과는 상관없이 학문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였다. 그가 힘쓰는 일은 말할 것도 없이 학문 연마이다. 실제로 용암은 그의 나이 27 살 되던 해 松堂

13) 『舊唐書』卷164.

朴英(1471-1540)을 만났다. 송당에게 배우러 가기 전, 그가 眞樂堂 金就成(1492-1551)에게 한 말에서도 그의 학문에 대한 열정과 마음가짐을 잘 알 수 있다.

선생이 마침내 진락당을 만나서 그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또, ‘송당은 도덕이 크고 넓은 분이나 당시의 여러 사람들이 배우는 사람들이 드물다. 우리가 책을 들고 가서 어려움을 묻는 것이 옳겠다.’하니, 진락당이 그렇게 하려 하지 않았다. 선생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나이가 어리면서 고거하는 병이 바로 이와 같다. 순순히 이러한 병을 벗어나 버린 뒤야 새로운 공부를 할 수 있다. 새로운 공부를 하는 데에는 일찍 스승께 나아가 배우는 것을 질문하는 것만 한 것이 없다.’고 하니, 진락당이 ‘그대의 말이 참으로 맞다.’고 하였다.¹⁴⁾

眞樂堂은 金就成의 호이다. 자는 成之, 스스로 호를 西山布衣라 하였다. 松堂 朴英에게 수학하였는데 『중용』과 『대학』의 깊은 뜻을 배워 存心養性의 방법과 觀物省察의 오묘한 뜻을 터득하고, 无極과 太極의 妙用을 배워 그 이치를 깨달았다. 한 평생 학문 탐구에 몰두하여 일가를 이루었다. 만년에는 당시의 대학자이며 재상이었던 金正國과 李彦迪의 추천으로 네 차례나 참봉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사직하고 한 번도 부임하지 않았다. 또한 의학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함으로써 藥性和 經絡에 대한 지식이 깊어 병든 사람을 많이 치료하였다.

용암과 진락당은 동문수학한 사이였다. 이들은 모두 선산 출신으로 선산의 十賢에 포함된다. 용암과 진락당은 한평생 벼슬을 하지 않고 학문에만 전념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14) “先生遂見眞樂堂, 道其意且曰, 松堂, 道大德宏, 當時諸賢, 鮮有學者, 吾輩可執經問難. 眞樂堂不肯, 先生曰, 吾輩少年高舉之病, 正如此耳. 順脫去是病然後, 做得新功, 莫若早就師友, 以質所學. 眞樂堂曰, 子言誠然.”『龍巖集』「年譜」 27歲條

자아는 위 단락 첫머리에서 학문에 대한 열정을 잃고 있다. 공부 비록 어렵다지만 소홀히 할 수 없다. 비록 그 길이 멀고도 험하지만 멈출 수 없다. 그것은 자아가 학문을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 나이가 어린 탓에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다. 意馬에 멍에 씌워 내달려 大道의 멀고도 아득한 뜻을 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意馬¹⁵⁾는 ‘心猿意馬’의 준말이다. 사람의 마음이 흩어져 어지러움이 마치 원숭이와 말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 같음을 비유한 말이다. 또한 이러한 흩어져 어지러워서 다스리기 어려운 心神을 가리키기도 한다.

마치 길들지 못한 망아지나 원숭이처럼, 현재 자아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다. 걸으려는 마음을 잡지 못한다고 했지만 자아가 추구하는 목표는 분명하다. 그것은 大道를 찾는 것이다. 자아가 추구하는 대도는 자신의 心神을 찾는 것이다. 마음의 안정을 통한 진리 탐구이다. 마음이 고요히 가라앉아야 큰 길이 보인다. 마음이 흔들리면 큰 길이 보이지 않는다. 마음을 인도하는 길은 스승에 나아가 배우는 것이다. 공부하지 않고 잘 난 체해서는 안 된다. 위의 眞樂堂과의 대화에서도 자아, 즉 용암의 이러한 생각을 잘 알 수 있다.

다음 단락은 마음을 안정시킨 뒤 나타나는 현상과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읊조리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연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자연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성을 유지해야 한다.

④本性 유지와 현실 적응이다. 위의 넷째 단락에서 그러한 그의 정신이 보인다. 마음을 안정시키면 사물의 이치가 보인다. 마치 하늘빛이 마음속에 비치는 것과 같다. 하늘빛이 마음속에 비친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터득한다는 말이다. 공자는 나이 50 살에 ‘천

15) 『敦煌變文集·維摩詰經講經文』에 “卓定深沉莫測量，心猿意馬罷顛狂.”이라는 말이 나온다.

명을 알았다[知天命]’고 하였다. 천명을 알기 위해서는 사물의 유희에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

外物의 꾀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荀子』를 보면 “군자는 외물을 부리고, 소인은 외물에 부림을 당한다¹⁶⁾.”는 말이 있다. 군자는 외물에 의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소인은 외물에 따라 마음이 흔들린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아는 소인보다는 군자의 길을 가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자연의 이치, 즉 天命이 마음속에서 피어난다. 천명을 알아도 인간세상의 是非에 간여하지 않을 수 없다. 자연의 이치를 알면 속세의 일에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다.

자아는 이 단락에서 먼저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켜야 하며, 마음이 안정되면 천명을 알고, 천명을 알면 세상에 시비를 바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자아가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불교나 도교의 신도들처럼 현실을 벗어나지 않는다. 또 이러한 생각이 없다. 이것은 자아의 정신기반이 유학의 현실주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현실을 떠나서 살 수 없다. 산에 들어가 산다고 하여 현재의 세상을 벗어나지 않는다. 마치 사육신 가운데 한 사람인 성삼문이 伯夷叔齊가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를 캐 먹은 것을 비방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처럼 자아는 자연의 질서를 어기려 하지 않는다.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이 이치에 맞춰 살아가려 한다. 현실사회에서 도피하거나 이를 부정하려 하지 않는다. 현실에 참여하여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려 한다. 그는 당시 현실이 태평스런 것으로는 보지 않았다.

⑤현세에 대한 憂患意識을 가지고 있다. 위의 다섯째 단락을 보

16) “君子役物, 小人役於物.” 『荀子』, 「修身」篇.

면 그러한 그의 정신이 나타난다. 자아는 현실 세계를 ‘험준한 길’로 보았다. 그만큼 인생살이가 힘들고 위험하다는 말이다. 험준한 길을 그냥 조심스레 걸아가거나 서 있는 것이 아니다. 자아는 그 길 위에 넘어졌다. 실제로 넘어진 것이 아니라, 자아의 처지가 위태로운 벼랑에서 넘어진 것과 같이 불안하다. 그 자신이 현실세계에 참여하여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 길이 막혀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 자아의 가슴속은 답답할 뿐이다.

세상 사람들은 극단적이다. 어떤 이는 마음이 급하고, 어떤 이는 느리다. 빨리할 때는 빨리하고, 천천히 할 때는 천천히 일을 처리해야 한다. 빠르고 느린 속도를 상황에 맞춰 조절해야 한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검은 색 아니면 흰색뿐이다. 검은 색과 흰색을 섞은 사람이 없다. 극단적인 보수나 극단적인 혁신은 위험하다. 때로는 보수적으로 때로는 혁신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한다. 원만하게 일을 처리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 마치 어린 아이가 우물가에 선 듯 세상은 위태롭기만 하다. 여기서 자아의 우환 의식이 드러나고 있다. 맹자는,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이 사람에게 내리려하실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하며, 그 근육과 뼈를 수고롭게 하며, 그 몸과 피부를 굶주리게 하며, 그 몸을 빈궁하게 하여, 행함에 그 하는 것을 어지럽힌다. 이것은 마음을 분발시키고 성질을 참게 하여 그 잘 하지 못하는 것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사람은 항상 허물이 있는 뒤에라야 그 잘못을 고치나니 마음이 피곤하고 생각에 걸린 뒤에 분발하며, 얼굴빛에 드러나고 목소리에 나타난 뒤에 깨닫는다.

들어가면 법도 있는 집안과 보필하는 신하가 없고, 나오면 적국과 외환이 없는 나라는 항상 멸망한다. 그런 뒤에야 사람은 우환에서 살고 안락에서 죽음을 알 수 있다.¹⁷⁾

17) “天將降大任於是人也，必先苦其心志，勞其筋骨，餓其體膚，空乏其身，行拂

라고 한다. 큰일은 쉽게 이루어지는 법이 없다. 반드시 정신이나 육체적으로 고통이 따르며, 이를 이겨내야 한다. 어려움은 극복의 대상이지 좌절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이 고생을 하지 않으면 인생의 참맛을 느낄 수 없다. 자아는 지금 우환에 싸여 있다. 자아가 근심하는 것은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다. 그는 자신의 영달보다는 사회질서를 위해 고민하고 있다. 사회질서를 바로잡으면 나라가 안정된다. 나라가 안정되면 백성들이 편안해진다. 백성이 편안히 생활할 수 있는 사회가 복지국가이다. 자아의 생각은 맹자의 말과 서로 통한다.

⑥天理에의 順行과 一治一亂의 循環史觀의 表出이다. 그는 世路의 桎梏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극복하려 한다. 세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본성에 따라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면 편안[泰]하고, 이에 역행하면 편안하지 않다. 즉, ‘否泰’이다. 땅기운이 위에 있고 하늘 기운이 밑에 있는 모습이 이것이 地天泰卦이다. 반대로 하늘기운이 위에 있고 땅 기운이 밑에 있는 형상이 天地否卦이다. 이러한 기운이 번갈아 나타난다. 역사의 수레바퀴에 따라 治亂이 교차한다. 즉, 一治一亂의 循環이다.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을 태평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자아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에 맞물려 자신의 삶도 평탄하지 않다. 마치 무거운 형틀에 눌러 있는 것과 같다. 첫 구절의 ‘重’, ‘鉗械’, ‘世梗’과 같은 말은 모두 자아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자아는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려 한다. 그 극복하는 방법에 있어 자아는 편법을 쓰려하지 않는다. 세상이 고통스

亂其所爲. 所以動心忍性, 曾益其所不能. 人恒過然後能改, 困於心衡於慮而後作. 徵於色發於聲而後喻. 入則無法家拂士, 出則無敵國外患者, 國恒亡, 然後知生於憂患而死於安樂也.” 『孟子』, 「告子」下篇.

러울 때일수록 자아는 ‘性命’의 마땅함을 따르려 한다. ‘성명의 마땅함’은 다름 아닌 ‘天理’를 따르는 것이다. 천리는 자연의 이치이다. 자연의 이치는 逆行이 아니라 順行이다. 질서를 어기는 것이 아니라 질서에 따르는 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자아 자신은 자연 질서에 순응하려 한다.

위 여섯째 단락의 제 3-6구에서 보면, 먼저 자아는 天命과 智謀가 서로 어긋났다고 하였다. 어려운 상황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꾀를 내었으나 자연의 이치와는 어긋났다. 自我가 그러한 것이 아니라 世界가 그러하다. 자아와 세계가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자아의 마음[心]과 세상의 일[事]이 서로 어긋난다. 그것도 잠깐 동안의 不調和가 아니라 오랜 세월동안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命’과 ‘心’은 서로 순행이다. 하지만 ‘謀’와 ‘事’는 그렇지 못하다. 자연 질서인 천명과 자아의 마음은 서로 조화롭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의 꾀와 일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 자아는 외로울 수밖에 없다. 마음만 외로운 것이 아니다. 하는 일도 순조롭지 못하다. 왜냐하면 함께 마음 맞는 동료가 없기 때문이다. 자아는, 도를 행하려 해도 행할 수 없다. 자신이 이 세상을 이끌고 나갈 위치에 서지 못 하였으니까.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는다. 자아 자신은 聖賢들의 정신세계에 귀의하기에 세상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다. 앞에서 인용한 「맹자」의 말처럼 하늘이 큰 인물을 낳아 반드시 먼저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자아는 마지막 句에서 자신이 갈 길에 대한 다짐을 묘사하고 있다. 자아는 老耄의 窮悲를 한탄만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老耄’이라는 말에 주의해야 한다. 노혁은 바른 길, 즉 正道서 벗어난 것을 뜻한다. 마음이 혼란에 빠진 상태를 말하기도 한다. 錢穆은 ‘苦渴’의 뜻이라 하였다. 『장자』를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큰 지혜를 지닌 사람은 언제나 여유롭고 작은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언제나 여유가 없다. 위대한 말은 담담하고 신통하지 않은 말은 쓸 데 없이 수다스럽다. …(중략)… 가을이나 겨울 날씨가 초목을 시들게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은 날마다 그 생명을 죽여가고 있는 상황을 지적인 말이다. 이리하여 세상 사람들은 자꾸 깊은 데로 빠져 들어가 결국은 다시 돌이킬 수 없게 되어 버리고 만다. 상자 속에 갇힌 듯하다는 비유는 늙어감에 따라 더욱 사도에 빠지는 것을 말한 것이다. 죽음에 가까운 늙은이의 마음은 다시 소생시킬 수 없다.¹⁸⁾

장자는 지혜가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을 구분하였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언제나 여유롭다. 그것은 현재나 앞으로 닥칠 일을 예감하고 미리 대처하기 때문이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언제나 자신의 앞에 닥친 일을 처리하지 못하여 허둥대고 있다. 가을부터 겨울에 이르는 철에는 肅殺氣가 몰려온다. 이 때가 되면 풀은 시들고 나뭇잎은 단풍이 들어 떨어진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늙어갈수록 마음이 조급하다. 물론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달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 나이가 들면 기력이 쇠한다. 기력이 쇠하면 자신이 죽을 날이 점점 가까워 온다는 것을 느낀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은 초조하여 진다. 마음이 초조하면 욕심이 생긴다. 이것이 바로 老湫이다. 慾心은 正道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할지라도 자아는 그렇지 않다. 그것은 자아가 의지할 곳이 있기 때문이다. 자아가 의지할 곳은 聖賢이다. 성현의 학문에 의지하다 보니 사사로운 욕심이 없어졌다. 그러니 邪道로 마음이 내달릴 리가 없다.

이 작품을 지었을 때 그는 20대였다. 이 작품은 韓愈의 작품에 차운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과장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

18) “大知閑閑, 小知閒閒. 大言炎炎, 小言詹詹. …(中略)… 其殺若秋冬, 以言日消也. 其溺之所爲之, 不可使復之也, 其厭也如緘, 以言其老湫也. 近死之心, 莫使復陽也.” 『莊子』「齊物論」.

서 龍巖 자신의 생각을 읊조렸다고 할 수 있다. 그 자신이 비록 나이 들어 늙더라도 老漁에는 빠지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그것은 그가 일생동안 자신의 정신을 기르는 학문에 충실하고자 하는 다짐이다.

그가 비록 『장자』에 나오는 말을 쓰고는 있지만 자신의 정신은 초월적인 것이 아니다. 그의 정신은 어디까지나 인문세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단지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장자』의 말을 따왔을 뿐이다.

IV. 「悶己」賦의 영향과 계승

우리나라 시인들 가운데 작품에 ‘悶己’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李永瑞(? - 1450)이다. 그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 집에서 지내며 회포를 써 인수에게 부침(移病在家書懷寄仁叟)¹⁹⁾」라는 제목의 七言律詩를 지었다. 이 시의 頷聯 出句에, “창려[한유]는 우습구나, 민기부를 짓다니[笑殺昌黎悶己賦],”라 하고 있다. 이영서의 이 시는 ‘悶己’가 핵심어가 아니다. 따라서 본 절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실제로 한유의 작품을 처음 次韻한 사람이 용암이다. 그의 「次悶己賦」는 次韻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내용 또한 많이 답았다. 다

19) 『東文選』卷17에 실려 있는 데 원문과 번역을 들면 다음과 같다.

有誰能記一迂儒	나 같이 우랄한 선비 뉘라서 기억하리,
久矣離群獨索居	친구를 떠나 혼자서 산지 벌써 오래네.
笑殺昌黎悶己賦	창려(昌黎)는 우습구나, 민기부 짓다니,
任他中散絕交書	해강(嵇康)은 맘대로 절교서 보내라지.
家貧未辦賢人酒	가난한 살림이라 현인주 못 마련하니,
地僻難邀丈者車	궁벽한 곳에서 장자 수레 어이 맡을까.
攀附青雲既無分	청운에 붙어 오름이 내 분수에 없으니,
鹿門歸計可虛徐	녹문에 돌아갈 준비 내사 어이 늦추리.

른 점은 한유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세계를 읊조렸으나, 용암은 자신의 앞날을 예견하고 있다는 점이다.

龍巖 말고도 같은 제목의 賦를 지은 사람이 있다. 象村 申欽(1566-1628)과 晦軒 趙觀彬(1691-1757)²⁰⁾이다. 두 사람은 구체적으로 韓昌黎, 즉 韓愈의 민기부에 차운한다고 하여, 그들이 차운한 대상이 한유의 작품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용암은 구체적으로 원작품의 작자를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서 신희의 「한창려의 민기부에 차운함(次韓昌黎悶己賦)²¹⁾」을 들어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다.

① 궁벽한 곳에서 홀로 지내는 자아

咨余情其練要兮	아, 내 마음 도에 들어맞으려 함이여,
羣窮巷而塊然	궁항에 었드려 우두커니 혼자 있다네.
蓬與藿其塞逕兮	쑥대와 각초로 오솔길을 막음이여,
慨晤語之莫宣	아, 마주하여 얘기할 사람도 없다네.

② 자아와 세상 사람들의 다른 점

唯古人之圖籍兮	오직 옛 성현들이 지으신 서적을 가지고,
喟憑茲而自寬	위연히 이를 빙자해 스스로 위로하노라.
世既溷而幽昧兮	세상은 이미 혼탁하고 또 어두워졌나니,
謂夷濁而跖賢	백이는 탁하고 도척은 어질다고 말하네.
彼朝菌之日及兮	저 조균은 태양만 보면 죽어버리니,

20) “夫何哲人之不遇兮，肇自古而已然。紛懷寶而莫售兮，或憑藻而自宣。余亦與世而相違兮，迹雖距而心寬。迨未老而力學兮，庶同歸於前賢。埃河清其未可期兮，反有願於長年。汨東西而流離兮，飽險阻與艱難。思動心而忍性兮，悲日暮而途遠。望南山而嵯峨兮，溯東湖兮漫漫。想三代之盛際兮，抱二典之徽言。嗟古道之難行兮，顧同志兮其誰競。斯邁而斯征兮，果孰是而孰非。衆既棄我而如遺兮，尙舊遊之在懷。夜何長而睡何遲兮，宗國憂兮安危。念救時之長策兮，壹不知其所宜。欲相忘而不復思兮，恐大義之有違。知天運之好還兮，睹白日兮何時。聊處順而履貞兮，復奚悶而奚悲。”『晦軒集』卷1, 『韓國文集叢刊』211.

21) 『象村稿』卷1, 『韓國文集叢刊』71.

又焉知夫大年 또 어떻게 대년 알 수가 있으리오.
伊舊鄉之復阻兮 저 고향 가는 길이 멀고도 험난함이어,
信揭厲之俱難 옷 입거나 벗거나 건너기 다 어렵다네.

③ 자아의 국량이 넓음

繫一氣之孔神兮 천지의 원기가 매우 신명함이어,
思御風於汗漫 드넓은 곳 바람 타고 다닐 생각이네.
聞玄脩於至眞兮 들으니 도 깊은 지인이나 진인,
超獨契乎微言 혼자서도 오묘한 말을 깨달았다 하네.

④ 세상의 혼란함을 묘사

念鴻濛兮安在 생각하건대, 홍몽이 어디에 있느뇨,
舍爾遊兮其誰 내 너와 아니 놀고 그 누구와 놀리.
嗤指馬之紛紜兮 가소롭다 지록위마 같이 떠돌이,
蹇疇是而疇非 아 과연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는가.

⑤ 성현과 현실의 괴리

姚姒之不可追兮 순임금 우임금을 만날 수 없음이어,
況復見乎無懷 더구나 무희씨를 다시 볼 수 있으랴.
自智力之傾奪兮 지혜와 힘으로 서로 앞장서려 함이어,
競錐刀而相危 사소한 걸 다투다 서로 위태롭게 돼.

⑥ 자연에 순응하는 삶

雖章甫之淘美兮 아무리 믿음 있고 아름다운 선비라도,
適裸壤兮非宜 나양에 가서는 아니 되는 법이라네.
考往哲之高軌兮 옛 현철들의 높은 법도를 상고하건대,
蓋樂行而憂違 뜻 맞으면 베풀하고 안 맞으면 떠났네.
盍事天而知命兮 어찌 하늘 섬기고 천명을 알지 않으리,
羌處順而安時 자연에 순응하니 때 맞춰 편안하다네.
優哉游哉以卒歲兮 유유자적하면서 한평생을 마침이어,
愴奚喜而奚悲 욕심 없거니 무엇이 기쁘고 슬프리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申欽의 賦 역시 한유나 용암의 것처럼 단

락과 押韻이 같다. 象村의 작품에 나타난 大綱도 한유의 것과 비슷하다. 그것은 자아 자신의 생각과 일반인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아는 道를 추구하지만 일반인은 利를 추구한다. 그래서 자아는 궁벽한 곳에서 외로이 지내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이 賦에 나타난 자아와 일반인은 그 局量에서 차이가 있다. 일반인들은 아침나절에만 살다가 태양만 보면 죽는 버섯, 즉 朝菌²²⁾과 같이 그 식견이 얇다. 그러나 자아는 大年과 같이 식견이 원대하다.

셋째 자아는 천지의 원기가 신명함에 걸 맞춰 자신의 정신세계가 넓음을 읊고 있다. 이 역시 자아와 세계의 정신영역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광대한 천지자연의 元氣, 즉 鴻濛한 세상에 서로 시비하는 것에서 벗어나 친한 이와 노닐려 한다. 자아는 자연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려 한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이익을 위해서 다투는 것이 싫기만 하다.

자아는 세상의 是非가 혼동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莊子』 「齊物論」의 말을 따왔다. 즉, “이것이 곧 저것이요 저것이 곧 이것이다. 저것에도 하나의 시비가 있고 이것에도 하나의 시비가 있다. ... (중략) ... 손가락을 가지고 손가락의 손가락 아님을 깨우치는 것이 손가락 아닌 것을 가지고 손가락의 손가락 아님을 깨우치는 것만 못하고, 말[馬]로써 말의 말 아님을 깨우치는 것이 말 아닌 것으로써 말의 말 아님을 깨우침만 못하다. 천지는 한 개의 손가락이요, 만물은 한 마리 말이다.”²³⁾

다섯째 자아가 현실 세계의 다툼에서 벗어나 옛 성현을 만나려

22) 『莊子·逍遙遊』.

23) “是亦彼也, 彼亦是也. 彼亦一是非, 此亦一是非. ... (中略) ... 以指喻指之非指, 不若以非指喻指之非指也. 以馬喻馬之非馬, 不若以非馬喻馬之非馬也. 天地一指也, 萬物一馬也.” 『莊子·齊物論』.

한다. 자아가 만나려 한 성현은 舜임금, 禹임금, 無懷氏였다. 이들은 모두 仁義 정치를 베푼 上古時代의 제왕이다. 이들은 이상적인 정치를 실천하여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자아가 바라는 이상향이다. 그러나 자아가 처한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상적인 정치가 없다. 따라서 보통사람들은 서로 분쟁한다. 자아는 이것을 안타까워하며, 현실세계의 분쟁을 경계한다.

여섯째 자아는 이러한 분쟁에서 벗어나 자연에 순응하며 유유자적하게 살아가려 한다. 예의범절이 있는 선비가 무례하여 옷을 입지 않고 알몸으로 생활하는 裸壤에 가서는 안 된다고 한다. 자아는 그만큼 생활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한다.

이처럼 한유의 「悶己」賦를 조선 시대에 이르러 몇 사람이 차운하였다. 그 가운데 용암의 작품이 가장 앞선다. 용암의 작품은 비록 한유의 것을 차운하기는 하였지만 초기 부의 형태이다. 그러나 申欽이나 趙觀彬의 것은 한유의 작품과 그 압운이나 형태가 같다.

이 작품을 지은 이들은 용암을 제외하면 공통점이 있다. 모두 어렸을 때 불우했다는 것이다. 일찍 부모를 여의거나 관직에 나아가지 당쟁에 휩싸여서 좌천되는 경우이다.

용암의 이 「차민기」부는 위 두 사람의 것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 자신의 앞날을 예언한 讖言이기 때문이다. 비록 그의 나이 20대에 이 작품을 지었지만, 자신이 일생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짐작하였다.

이 작품을 지은 사람들은 자신의 정신, 또는 지향의식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다. 자신들이 추구한 것은 성현의 도, 즉 爲己之學이다. 이들은 모두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한다. 申欽이나 趙觀彬은 실제로 벼슬길에 나아갔다. 이들 두 사람은 政丞과 判書에까지 올랐다. 그러나 이들의 宦路가 평탄하지는 않았다. 이들은 浮沈을 거듭하였다.

이 「차민기」부를 지은 이들은 현실세계가 비록 어렵지만 이 현

실에 좌절하지 않았다. 모두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편으로 성현을 만나려 하였다. 그들은 학문에 전념하여 물질적 고통에서 해방되려 하였다. 이 작품을 지은 사람들은 모두 학문으로 이름을 드날렸다. 이는 그들이 많은 어려움을 참고 이겨냈기 때문이다. 그들의 이러한 정신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V. 맺음말

본고는 龍巖 朴雲(1493-1562)의 「次悶己」賦에 나타난 志向意識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 연구 방법은 인문주의 비평 이론을 적용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는 것으로 그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용암의 「次悶己」賦는 당나라 때의 문장가인 韓愈의 「悶己」賦를 차운한 것이다. 차운하였기에, 두 작품은 押韻이 같다. 그러나 한유의 것은 출구에 ‘兮’자가 있다. 그러나 용암의 것은 ‘兮’자가 없다. 용암은 초기 賦의 형태를 취했고, 한유의 것은 楚辭이후의 형태를 취했기 때문이다.

각 句의 글자는 ‘兮’자를 제외하면 의미단락은 6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賦에서 가장 많은 글자가 한 句에 4자와 6자이다. 따라서 두 작품은 기본 賦의 기본 字數에 충실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한 단락은 4句에서 8句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四相과 八卦의 수를 원용한 것이다.

두 작품 모두 압운의 묘미를 살렸다. 平聲의 개방·진전·밝음의 이미지와 仄聲의 정지·퇴보·어둠의 심상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그의 賦에 나타난 정신세계는, ①浩然之氣를 순양하고자 하였다.

그가 어린 나이에 지었기 때문에 정신세계가 완전히 굳어지지지는 않았지만, 그의 국량은 대단히 크다. ②청빈한 선비로 爲己之學을 추구하였다. 그의 학문의 지향점은 고인, 즉 옛 성현을 따르는 것이었다. 그는 ‘溫故而知新’하는 마음으로 학문에 임했다. 여기서 그의 尙古主義 역사관이 드러난다. ③겸손한 마음으로 침잠 구도하려 하였다. 龍巖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大道를 추구하였다. 그가 추구한 대도는 心神의 안정을 통한 진리탐구였다. ④그는 外物의 유혹을 받지 않았다. 그것은 그 자신이 타고난 本性을 잘 보전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현실 세계를 벗어나려 하지 않았다. 그의 정신의 근거(根底)는 인문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⑤그는 현실세계에 대하여 憂患意識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우환의식은 자신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질서와 인민의 福利를 위한 것이었다. ⑥그는 천리에 순행하려 하였다.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면서 세상의 어려움을 이기려하였다. 그는 현실세계가 어렵다고 하여 좌절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한유의 「悶己」賦를 차운한 사람은 龍巖과 象村 申欽(1566-1628), 그리고 悔軒 趙觀彬(1691-1757)이다. 물론 문집이 유포되지 않은 사람의 작품이 더 있을 수도 있다. 필자가 입수한 자료는 이 세 수뿐이다. 상촌이나 회헌의 작품은 한유의 것과 외형적으로 보면 같다. 그 의미의 大綱도 대단히 닮았다.

이 상촌이나 회헌은 어렸을 때 불우했거나 宦路에서 浮沈이 많았다. 용암은 처음부터 관직에 나가지 않았다. 이 점이 앞의 두 사람과 다른 점이다.

「次悶己」賦를 지은 사람들은, 자신의 정신세계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들이 추구한 것은 爲己之學이다. 작품 속에서, 이들은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려 하였다.

이 「次悶己」賦를 지은 사람들은 현실세계가 어렵다고 하여 좌절하려 하지 않았다. 작품 속에서, 자아는 어려움을 극복하려 하였

다.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편으로 성현을 만나려 하였다. 그들은 학문에 전념함으로써 물질적 고통에서 해방되려 하였다. 이 작품을 지은 세 사람은 모두 학문으로 이름을 드날렸다. 이들의 이러한 태도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준다.

이상으로 본고를 마치기로 한다.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眞樂堂 金就成이나 용암과 비슷한 시기에 생존했던 이들에 대해서는 이후 차근차근 고찰할 것을 다짐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盧景任, 『敬菴集』(『韓國文集叢刊』 74)
 朴英, 『松堂集』(『韓國文集叢刊』 18)
 朴雲, 『龍巖集』(木版本, 慶北大學校 中央圖書館 所藏本)
 宋純, 『俛仰集』(『韓國文集叢刊』 26)
 李德懋, 『靑莊館全書』卷15, 『雅亭遺稿』7.(『韓國文集叢刊』 257)
 李敏輔, 『豐墅集』(『韓國文集叢刊』 232)
 李象靖, 『大山集』(『韓國文集叢刊』 227)
 李珥, 『栗谷集』(『韓國文集叢刊』 45)
 李栽, 『密庵集』(『韓國文集叢刊』 173)
 李玄逸, 『葛庵集』(『韓國文集叢刊』 128)
 李滉, 『退溪集』(『韓國文集叢刊』 29)
 鄭述, 『寒江集』(『韓國文集叢刊』 26)
 崔峴, 『訥齋集』(『韓國文集叢刊』 67)

2. 논문

李九義, “松堂 朴英 시에 나타난 정신세계”, 『韓國思想과 文化』33, 韓國思想文化學會, 2006.6. pp.7~39.

李九義, “龍巖 朴雲 시에 나타난 정신세계”, 『溫知學報』第15輯, 溫知學會, 2006.11. pp.159~186, 外 多數.

3. 단행본

李澤容 主編, 善山仁同府古詩文集, 龜尾市, 2002.

The Realm in Yongam Park woon's an Ode of Having
Compassion on Himself(悶己賦)

Lee, Ku-Eui

This thesis examines how the ode-prose poem of Yongam Park woon(龍巖 朴雲) is linked with life, and what the consciousness sphere in his Ode of compassion on himself(悶己賦) is.

① It is the expression of the simple spirit of the classical scholar. His ode contains Korean traditional gentlemanship with Wigizihak(爲己之學). In the gentlemanship,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a gentleman should not be under the control of external things. His sphere of consciousness is not centrifugal but centripetal. ② It is the destitution of reality and the vast-flowing spirit(浩然之氣) of the ego. He lived a life of distress himself but his spirit was wide. ③ He has pursuit humiliate himself with seeking after truth. ④ He has pursuit humiliate himself with seeking after truth. ⑤ He emphasizes to uphold the awareness of cares(憂患意識) through actuality. ⑥ Lastly, he adapt himself with laws of nature.

In our country, the men who have borrowed the rhyme of Hanyu are Youngam, Sangchon Shinheum(象村 申欽) and Hoihun Chogwanbin(梅軒 趙觀彬). On external forms and general features, their works are similar to Hanyu's.

Key words : An ode of compassion on himself(悶己賦), Hanyu(韓愈), the vast-flowing spirit(浩然之氣), modesty, the awareness of cares(憂患意識), actuality, the sages.

李九義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한문학과

주소: 대구시 북구 산격동

전화번호: 011-513-4534(휴대전화)

전자우편: kelee08@knu.ac.kr

이 논문은	2008년 4월 29일	투고하여
	2008년 6월 2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8년 6월 30일	간행함